



2017년 김복순 할머니의 둘째 딸 신명희 씨가 두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에 응했다.

(사진= 대외협력처)

작은 우동 가게에서 시작된 나눔 “내 모든 것이 배움에 사용된다면”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캠퍼스에는 매년 새로이 새겨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떠나는 이름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교정을 떠나지 않은 채 우리의 가슴에 묻히기도 합니다. 경희와의 인연 속에서 삶을 마친 그들의 작은 흔적을 교정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 또 우리가 사랑했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바라는 기억 위에 다시금 그 이름을 적으며, 조금 늦은 부고를 전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김복순 할머니는 자신이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본인은 늘 꿈꾸던 교실에 이르지 못했지만 다른 이의 배움에는 힘이 되 고자 했습니다. 그는 생의 말년에 자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우리대학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故 김복순 할머니

경희의료원에서 세상을 떠나며 본인의 시신까지도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남겼습니다. 환갑에서야 한글을 배운 그가 남긴 “인재는 사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야 클 수 있다”라는 한마디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는듯합니다. 그녀가 생전에 일군 삶의 터전은 서울역 앞의 작은 우동 가게였습니다. 그럼에도 1970년대에 고향 거제도의 한 초등학교에 책상과 악기를 기부하며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IMF 위기 때에는 소외계층을 위해 내복을 기증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잔순이’라 불리며 절약을 몸에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아낀 것은 우동에 담길 재료나, 남에게 돌아갈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고는 남을 도울 수 없으니 항상 절약해야 한다”고 자식을 가르치던 할머니. 그가 덜어낸 것은 본인의 욕심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한기부

김 할머니가 마음으로 낳고 기른 세 명의 딸 역시 어릴 적부터 받은 할머니의 가르침과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자택을 기부할 때에도 즉시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했고, 둘째 딸은 본인 역시 우리대학에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대학은 1988년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혼수상태에 빠졌던 김 할머니가 경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뒤 딸과 함께 다시 학교를 찾은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학교에 남기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당시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했고, 현재는 평화의전당 부관장을 맡고 있는 김 동선 부처장은 “김 할머니의 기부가 알려지면서 많은 동문들의 마음도 움직였고, 더 많은 나눔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학교는 할머니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그럴 때마다 김 할머니는 껄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합니다.

다시 이루어질 할머니의 소원

2007년, 그녀는 “늙은 몸이지만 내 모든 것이 학생들의 배움에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고맙겠냐”는 말과 함께, 시신마저 학교에 남긴 채 경희의료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은 생전의 약속대로 ‘김복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학교와 할머니 사이에서 소통을 도왔던 김동선 부처장은 “몸이 불편하신 와중

에도 찾아갈 때마다 한복을 꺼내 입으시고, 머리를 곱게 빗으신 모습으로 가족처럼 반겨주셨다”며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할머니의 뜻과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유지와 달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0년이 지난 2017년까지 ‘김복순 장학금’이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못한 까닭입니다. 매학기 2명이 받아야 했던 그 장학금은 2017년과 2018년 1학기에 잠깐 운영됐을 뿐입니다. ‘김복순 장학금’ 운영을 맡고 있는 대외협력처는 할머니가 남긴 자택을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또 담당부처와 인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장학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가 변하고, 책임자가 바뀌며 그녀의 뜻을 기억할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명이라도 할머니의 이름과 뜻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취재 과정에서 김복순 장학금이 다시금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지나가는 학생들을 손자, 손녀처럼 바라보았다는 김 할머니. 사진에도 선명한 그의 눈빛을 기억하며, 할머니의 삶과 철학이 우리와 함께 해가길 바랍니다.